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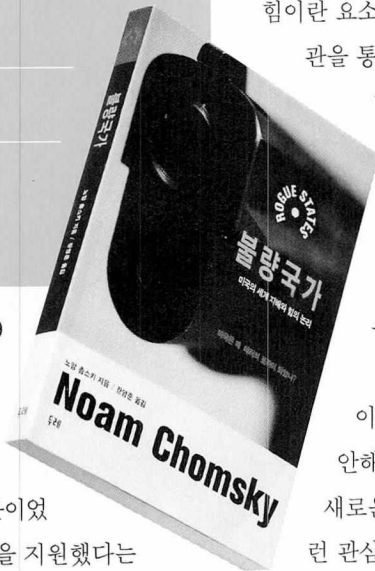
이 책은 미국이 어떻게 세계인권선언, 유엔헌장, 유엔 결의안, 국제법과 관행,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외면하고 짓밟았는지 보여주고, 제3세계 국가에 폭력을 일삼고 학살과 테러를 지원했는지 속속들이 파헤친다. 미국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위협으로 불량국가를 지목했지만, 지은이는 미국 자신이 불량국가라고 말한다.

책갈피산책

《불량국가》

미국이 선이 아닌 이유

노암 촘스키 지음 | 장영준 옮김
두레/A5신/370면/12,000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정당한가. 지난 9월에 워싱턴과 뉴욕을 습격한 테러에 대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대적인 폭탄 공습과 지상군 투입을 감행했다. 테러주모자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미국이 냉전시대 구소련에 대항하는 라덴을 지원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미국의 CNN은 테러 직후 환호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화면을 전세계에 내보냈다. 그러나 그 화면은 곧 예전에 찍어뒀던 화면임이 드러났다. 노암 촘스키의 《수명의 트라이앵글》(유달승, 이후)에서 지적됐던 중동문제의 또다른 트라이앵글인 지식인, 정치가, 언론인의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테러 이후 성명에서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보복전쟁을 정당화했다. 그의 아버지도 이라크 침공 당시 '악마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민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미국은 선인가. 국내 한 TV에서 미국내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의 한 대학생이 한 말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구분해서는 안된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은 결코 선이 아니다."

자유로운 '불량국가' 미국의 실제 파헤쳐

지난해 미국에서 출간된 노암 촘스키의 《불량국가》에는 '미국이 선이 아닌 이유'가 아주 꼼꼼하게 드러나 있다. 촘스키의 정의에 따르면, 불량국가란 선별된 적국들에 대해 적용하는 프로파간다로서의 용법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국제질서에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

는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문자 그대로의 용법이다. 전자로 해석하면 불량국가란 미국과 그의 파트너들이 낙인을 찍은 이라크, 쿠바, 북한 등 '말을 듣지 않는' 국가들일 테고, 후자로 해석하면 불량국가를 규정하는 그 강대국, 특히 미국 자신이 불량국가일 터다. 미국이야말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법에서 자유로운 나라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선 미국이 얼마나 '자유롭게' 세계인권선언, 유엔헌장, 유엔 결의안, 국제법과 관행,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외면하고 짓밟았는지 보여준다. 1986년 니콜라과에서 '불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한 데 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공격을 중지하고 배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자 미국 국무장관 조지 슈츠는 "분쟁 지역에서의 힘이란 요소를 무시한 채 유엔이나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외부중재기관을 통해 유도피아적이고 법률주의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촘스키는 이 조폭적 행동의 기원을 닉슨의 이른바 '미치광이 이론'에서 찾는다. 이 이론은 "우리의 적들은 우리가 미칠 수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가공할 파괴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겁에 질려 우리의 요구에 순응할 것"이라는 것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의 위협'이 사라지자 미국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불량국가'다. 이들 불량국가에서 미국이 새로운 위협으로 느낀 것은 '급진적 민족주의'였다. 미국의 이런 관심은 1999년 동티모르 주민투표 이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인종청소'에 대해 미국은 무기를 공급해왔고, 1999년 20만명의 동티모르인이 학살당하는 동안에도 미국은 무기와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이런 '자유로운' 폭력행위는 1986년 리비아 폭격, 1990년대 니카라과의 반군 지원, 1998년 수단에서의 파괴행위, 이라크 폭격에 이르기까지 계속돼온 것이다.

'진실은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이 책을 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방대하고 구체적인 자료의 인용 때문에 자꾸 읽기를 멈추게 되기도 하지만, 그의 말대로 진실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과연 '선'은 존재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 떠오른다. 어쩌면 촘스키의 이런 정치비평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그러나 촘스키는 말한다.

"이제 이 세계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당신이 생각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희망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당신이 자유에 대한 본능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현실을 변화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김정근 기자